

고창군 공식블로그 누적 방문자수 500만명 돌파

올해 일 평균 1천여명 방문, 유튜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아나운서의 고창뉴스

전북 고창군이 운영하는 공식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주민소통창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3월26일 기준 고창군 블로그 누적방문자 수는 500만1300명으로, 2013년 5월 첫 개설 이후 만 13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일평균 블로그 방문자수는 1200여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군은 공식블로그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은 '시기별 맞춤형 홍보'가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 직업, 지역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하고, 문화·관광·일상 등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군 유튜브도 지난해부터 뉴미디어 전담 공무원과 영상촬영 편집 담당 주무관이 신규 채용되며 참신한 기획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지역의 주요이슈를 현장취재로 알기쉽게 설명해 주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옛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의 슬기로운 활용법, 고창종합테마파크 오해와 진실 등이 큰 화제를 낳았다.

김관영 고창군 군정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고창군블로그가 유익한 정보 제공과 군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를 통해 고창군 정책과 정보를 잘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12개 세부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영임 기자

찾아가는 지적민원 접수, 도로명주소 홍보까지

남원시, 1석2조 시민 중심의 밀착 행정에 박차 가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시민 중심의 밀착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신청과 지적측량 상담을 통한 제공하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민생 시책이다.

사업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원거리 지역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2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대상 지역을 12개 읍·면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263건의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며 시민 밀착형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청 방문이 번거로운 고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장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듣고 처리가 가능해 안심된다'는 등 실질적인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남원시는 그간 축적된 수요 자료와 민원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6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민원 수요가 높은 원거리 읍·면을 우선 선정해 보다 집중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26일 운봉읍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적 행정 서비스

와 연계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과 생활 속 활용 사례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착과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김민주 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접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제강행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바로 뛰는 소통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하와이, 문화·관광·경제 분야 등 협력 기반 마련

전라남도가 하와이 바이오경제 이행을 위한 포럼 참가를 계기로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농수산물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2026 여수세계박람회 참여를 연계해 문화·관광 협력도 넓혔다.

전남도는 지난 18일까지 3일간 하와이에서 열린 제12회 하와이 바이오경제 이행을 위한 포럼에 참가해 저탄소 유기농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농수산물 수출 전략을 소개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 포럼 공동위원장 '제니스 고'를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친환경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 채널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하와이 주정부와 상·하원의원, 관광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방문단이 2026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다.

대표단에는 하와이 전통 민속공연인 '홀라움' 공연단도 포함돼 박람회 기간 관람객에게 이국적 문화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 분야에서는 H마트, 팔라마 수퍼 등 현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상설판매장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코나 컨퍼런스센터와 전남산 친환경 농자재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현지 차 전문매장에는 보성 녹차(말차) 납품을 협의하는 등 하와이 시장 진출 기반을 구체화했다.

전남도는 하와이 시장 진출을 위한 농수산물 상설판매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남광주통합특산물 출범과 연계한 국제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하와이 교류는 수출 협력 확대 등 문화·관광·경제가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26일 담양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26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하고,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나섰다.

우덕현 기자

남양부직포,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에 증설



정읍시가 지난 25일 시청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남양부직포(주) (대표 채현병)와 72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채현병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1998년 설립돼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둔 남양부직포(주)는 필터용 부직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크린앤사이언스(주) 정읍지점, (주)

성창오토텍 등 주요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탄탄한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남양부직포(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부지에 3053.9m² 규모의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 이를 위해 총 72억원을 투자하고 1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시는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

라 중장기적인 필터용 부직포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남양부직포(주)의 증설 투자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읍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현병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 경영 시 관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정읍시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하며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읍지향융복합사업단이 정읍지향 농업시스템의 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웅동전통문화생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며 전통 농업의 가치 확산에 나섰다

이영임 기자

전북도,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

전라북도·전북대·원광대·익산시 협약 체결...교육-산업-일자리 연계 강화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 기업이 함께한 질의응답에서는 직무 역량, 취업 전망,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전북도는 익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

부의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0개 지자체 중 4개 지역만 선정된 것으로, 향후 최종 지정되면 첨단 동물용 신약 개발과 산업 집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특구에는 13개 동물용의약품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지역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확대와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물헬스케어 산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라며 "교육과 산업, 일자리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6일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과 '추진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4대 전략, 17개 목표, 76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63개 전략과제와 191개 세부시책이 포함됐다.

특히 143개 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도입해 실행력을 높였다.

비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도는 사람·번영·환경·협력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상호 기자

웰니스 선도하다! 순천만국가정원 '가든멍'

뜨개질과 독서, 정원에서 '멍'을 만나다, 가든멍 개최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함께 즐기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 '소셜 웰니스'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 웰니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뜨개질과 독서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에는 뜨개질 유류 커뮤니티 공간과 뜨개용품 구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7층 규모의 매장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또한 Z세대를 중심으로 '독파민', '텍스트민' 등 독서 관련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독서를 멋지게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트렌드를 짚은 행사가 이번 주말 순천만국가정원 개울길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뜨개질과 독서를 명과 결합한 '뜨개멍'과 '글멍'이 각각 28일, 29일에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사전모집 인원 총 200명이 순식간에 마감되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뜨개멍'은 ▲100인 뜨개질 ▲뜨개실 나눔 ▲뜨개 작품 자랑 ▲뜨개질 수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에서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경험이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와 정원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덕현 기자

김제시「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추진

김제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창업공간 시설개선 사업 「2026년 김제시 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 참여자를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부스터-업(UP) 프로젝트」 중 「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후된 창업공간의 환경 개선과 소규모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창업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창업 아이템 특성 및 업종에 적합한 여건조성으로 청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18-39세 청년(예비)창업 기업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김제시로 전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육외간판 설치, ▲보안 기능 개선, ▲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창업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꿈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6일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총 사업비 81억 5,200만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337.37㎡,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됐다.

김서주 기자